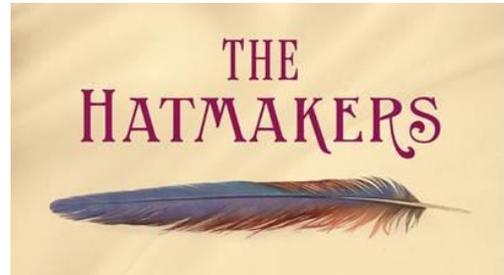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HATMAKERS
가제 : 마술 공방 이야기
저자 : Tamzin Merchant
출판사: Puffin (Penguin Random House)
발행일: 2021년 1월 28일
장르 : 모험



- * 수십 만 달러 규모로 출판 계약 체결(pre-empt)
- *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헝가리, 미국, 캐나다 판매 완료
- * 마법 모자를 만드는 사람들, 18세기 런던을 배경으로 바다 한 가운데서 사라진 아버지를 찾아 떠난 소녀의 모험을 그린 판타지 소설

자주 입고, 만지고, 사용하는 물건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마치 신체의 일부분처럼 물건의 주인과 하나가 되곤 한다. 개성과 취향을 나타내는 수단을 넘어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의 기분과 감정도 큰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 코델리아가 사는 마을에는 이 신기한 현상이 자연스레 시간이 흘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힘으로 ‘만들어’진다. 사람들을 원하는 대로 변화시키는 ‘마법’이 스며든 물건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코델리아는 마법 모자를 만드는 장인의 외동딸로 태어났다.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구해온 귀한 재료들을 목적에 맞게 꼼꼼히 선별해서 멋진 모자에 특별한 기운을 불어 넣는 모자 장인인 코델리아의 아버지는 부츠, 장갑, 망토, 시계 장인들과 좋은 경쟁을 벌이며 늘 부지런한 일꾼들로 북적이는 공방을 꾸려왔다. 하지만 왕의 의뢰로 ‘집중력을 키우는 모자’를 납품해야 하는 날, 새벽부터 누군가 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에 코델리아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깬다. 줄리 보넷 호를 타고 모자에 사용할 마법 재료를 수집하러 떠난 아버지가 예정보다 늦어져서 그렇지 않아도 걱정하던 참이었는데 마침내 돌아왔다는 생각으로 부리나케 문을 열어 나간 코델리아는 뜻밖의 얼굴과 마주한다. 왕국에서 왕 다음으로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휘틀루프 경이었다. 아버지의 등직한 조수이자 코델리아의 소중한 가족인 티베리우스 삼촌과 아리아드네 이모를 비롯한 공방 사람들 전부 하나 둘 방에서 천천히 나와 무슨 일인지 귀를 기울이자, 휘틀루프 경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비보를 전한다. 몇 시간 전, 줄리 보넷 호가 바다 한 가운데서 심한 파도에 휩쓸려 가라앉았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식이었다.

마침 근처에 있던 휘틀루프 경의 배가 열린 다가가서 구하려고 했지만 누구도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는 말에 다들 모자 장인이 저 세상으로 떠났다고 생각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코

델리아는 믿지 않았다. 10년 전, 엄마와 함께 지나간 항해에 나섰던 아버지는 12일 동안이나 바다 위에서 표류하다 육지로 무사히 되돌아온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배 위에서 예정에 없이 갓 태어난 코델리아를 요람 대신 큼직한 모자 상자에 누이고 애지중지 사랑을 쏟던 행복도 잠시, 거친 파도에 배는 두 동강이 났고, 죽기 직전까지 갓난아기인 딸이 담긴 상자를 가라앉는 배에서 빼내려고 발버둥친 엄마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진 코델리아는 아버지와 단 둘이 런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늘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눈물을 글썽이던 아버지를 떠올리면, 이렇게 허무하게 곁을 떠날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몇 개월 후 11살 생일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마법 모자 만드는 일도 가르쳐주기로 약속했으니 아버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굳게 믿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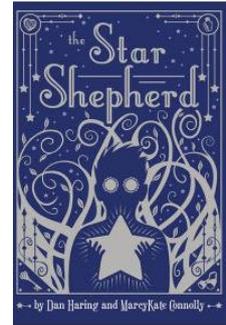
씩씩하게 아버지를 기다리는 코델리아 덕에 티베리우스 삼촌과 아리아드네 이모는 왕께 바칠 ‘집중력 모자’를 무사히 완성한다. ‘명상하는 갈색 거미’가 전날 달이 떠오른 직후에 만든 거미줄과 ‘해아리는 유리’에서 뽑아낸 귀중한 액체 몇 방울, 그리고 기억력에 좋은 로즈마리를 정확한 위치에 알맞은 양만 바르고 꺾어서 만든 멋진 모자는 무게가 적당한지 최종 점검을 거쳐 왕궁으로 갈 마차에 실렸다.

마법이 스며든 소지품이나 옷을 납품하는 장인들만 드나들 수 있는 문을 통해 마침내 왕궁 안에 처음 들어선 코델리아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기품과 위엄이 넘쳐야 할 왕은 말쑥쟁이 꼬마처럼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뛰어다니거나 고향을 치고, 그 옆에서 아름다운 공주님이 날뛰는 아버지를 붙들려고 애쓰고 있었다. 코델리아의 아버지에게 ‘집중력 모자’를 의뢰한 것도, 얼마 전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왕이 나라의 중대한 결정이 담긴 문서를 단 한 장도 읽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마법 모자를 써보라는 공주와 신하들의 간곡한 요청에도 마구 뛰어다니기만 하던 왕을 붙든 건 코델리아였다.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추곤 하던 춤을 난데없이 왕실 한 복판에서 추기 시작하자 왕도 눈을 떴지 못했고 그 때 집중력 모자를 머리에 얹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다행히, 삼촌과 이모가 불러 넣은 강력한 집중력이 발휘되어 왕은 금세 차분해졌다. 아버지가 사라져 연락이 두절된 것이나 멀쩡하던 왕이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린 것이 수상하다고 느낀 코델리아는 마을의 다른 장인들까지 이상한 사건에 휘말리자 누군가 조심해서 써야 할 마법을 알 수 없는 목적을 위해 악용하고 있음을 알아챈다. 꼭 필요한 곳에, 적당히 활용해야 하는 마법의 힘을 마구잡이로 쓰는 자, 그의 정체를 알아내야 아버지도 되돌아올 수 있다고 판단한 코델리아는 분명 가까운 곳에 있을 거짓말쟁이를 물색하기 시작한다. 왕에게 숨이 차오를 때까지 점프하게 만드는 신발을 선물로 건넨 자, 왕국을 손에 넣으려는 야심을 품은 비열한 악당을 찾기 위해 용감히 맞서는 코델리아의 모험이 신비한 마법이 스며든 흥미로운 물건들과 함께 펼쳐지는 매력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탐진 머천트(Tamzin Merchant)는 호주, 남아프리카, 두바이에서 살다가 10대 초반에 영국으로 건너왔다. 열일곱 살부터 배우로 활동하며 ‘Pride and Prejudice’, ‘Tudor’ 등에 출연했다. 수상 경력이 있는 단편 영화의 각본과 감독을 맡은 경력이 있다.

제목 : THE STAR SHEPHERD
가제 : 별을 지키는 사람들
저자 : MarcyKate Connolly, Dan Haring
출판사: Sourcebooks Young Readers
발행일: 2019년 9월 10일
분량 : 320쪽
장르 : YA 소설



- * **동화와 판타지 서사의 매력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이야기. 어린 독자들에게 판타지 장르로 뛰어드는 첫 계기가 될 만한 책이다** - 「북리스트」
- * **“몇 가지 스팀핑크 요소와 함께 펼쳐지는 경이로운 천상계의 동화”** - 「커커스 리뷰」

밤새 높은 탑 꼭대기에서 하염없이 밤하늘을 응시하는 별 지킴이 티린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5년째 이 힘들지만 보람찬 일을 묵묵히 수행해왔다. 헤아릴 수 없는 먼 옛날,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밤은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어둠으로 꽉 채워졌다. 깜깜해지면 슬금슬금 나타나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괴기스러운 존재들의 횡포가 날로 거세지자, 일곱 명의 선지자들은 큰 결단을 내린다.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 괴이한 존재들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도록, 스스로 빛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지금은 모두 희미해지고 사라진 마법 능력을 갖고 있었던 이 선지자들은 각자 자신의 심장을 꺼내어 삼베로 만든 특별한 주머니에 고이 담아 먼 하늘 위로 쏘아 보냈다. 멀찍이 간격을 두고 밤하늘에 자리 잡고 별이 된 7개의 심장은 거대한 안전망이 되어 어둠의 존재를 물리치는데 성공했다. 이들의 고귀한 희생을 알게 된 후손들 중에 마법을 타고난 사람들도 그 노력에 동참하여 나중에는 수천 명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귀중한 별들이 곳곳에서 밤하늘을 밝혔다. 하지만 우주에서 원래 만들어진 별이 아니기에, 시간이 흐르면 힘이 빠져 지상으로 추락하는 일이 일어났다. 별 하나마다 인류를 지켜야 한다는 선조들의 값진 희생이 담겨 있기에, 사람들은 ‘별 지킴이’라는 공식적인 직책을 만들었다. 왕국 곳곳에서 티린이 매일 밤 머무르는 곳과 같은 높다란 탑에 오르는 이 수많은 지킴이들은 유성처럼 예고 없이 떨어지는 별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추락하는 모습이 포착되면 서둘러 달려가 별을 ‘구조’했다. 빛이 꺼지기 직전까지 약해진 별을 고이 탑으로 다시 가지고 와서 특수 제작된 새로운 항에 넣어서 새벽이 오기 전, 다시 밤하늘로 돌려보내는 것이 별 지킴이들에게 주어진 임무였다. 드렌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티린은 별 지킴이 집안에서 나고 자란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간곡히 부탁한 대로 지킴이가 되었고, 그 때부터 하나뿐인 아들 카이로와 함께 밤마다 탑에 올랐다.

이제 열한 살이 된 카이로는 사실 아빠처럼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거의 매일 밤 아빠 곁에서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며 자랐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아빠처럼 유능한 별 지킴이가 되리라 마음 먹고 아빠가 어떻게 일하는지 하나하나 지켜보았다. 가장 신기한 순간은 하늘에서 추락한 별을 조심스럽게 작업대 위에 올려 놓고 낡은 보관함을 열 때였다. 선지자들이 처음 심장을

꺼내던 시절보다 훨씬 더 기술이 발달한 지금은 마법 대신 유리나 금속 같은 재료를 적절히 섞어서 만든 전용 보관함을 만들 수 있고 아버지가 거의 멈추기 일보직전에 이른 심장을 새로운 보관함에 넣었을 때 곧 다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지켜볼 때만큼 가슴이 벅찬 일도 없었다. 워낙 신중하게 해야 하는 작업이라 카이로가 아무리 졸라도 아빠는 별 지킴이로서 해야 할 일들을 절대 카이로가 대신 하도록 두지 않았다. 그러다 유난히 정신없이 바쁘던 어느 밤, 탑에서 해야 할 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밤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카이로가 별을 주우러 달려간 그 날 절대 잊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풀숲 사이에서 비치는 열은 빛을 찾아 서둘러 달려간 카이로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오싹함에 온 몸을 떠다. 곁에 있던 애완견 사이퍼도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짖어 대고, 그 순간 카이로는 시커먼 무언가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 자신도 모르게 방금 주운 별을 방패처럼 앞으로 쪽 내밀자 그 보이지 않는 존재가 뒤로 물러나는 기척이 느껴졌다. 세상을 집어 삼키려고 했던 어둠의 존재가 다시 나타난 걸까? 카이로는 이 소름 끼치는 의심이 사실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된다. 어쩌다 하나씩 떨어지곤 하던 별들이 한꺼번에 누가 밤하늘을 흔들기라도 한 것처럼 우수수 떨어진 건 시작에 불과했다. 별 지킴이들이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다 구할 수 없었던 이 절망적인 밤이 지나고 바로 다음 날 또 다시 한 무리의 별이 비처럼 떨어졌고, 티린과 카이로가 전속력으로 달려갔을 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별이 떨어져 땅이 움푹 파인 흔적은 있는데 별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 별을 훔쳐간 것이다.

티린은 곧바로 별 관리위원회를 찾아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렸지만 선지자들의 별이 멀쩡히 남아 있는 한 불길한 일은 벌어질 리 없다며 콧방귀를 끼는 위원회 사람들의 반응에 되려 기겁하며 돌아온다. 결코 넘길 수 없는 변화임을 직감한 아버지는 홀로 대체 누가, 왜 별을 훔쳐갔고 왜 별이 한꺼번에 추락했는지, 게다가 밤이 아닌 낮에도 별이 떨어지는 기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찾으러 길을 나섰다. 옆친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가 떠난 후 또 다시 별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자 관리위원회는 티린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도외시켰다며 별 지킴이 자격을 박탈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긴 일터에서 억울하게 쫓겨났다는 사실에 격분한 카이로는 직접 위원회를 찾아가 그 동안 생긴 일들을 자세히 보고하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카이로는 하나뿐인 친구 안드라와 늘 든든한 가족이 되어준 개 사이퍼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의 뒤를 쫓기 시작한다. 별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 어둠 속에서 다시 나타난 존재들의 위협으로부터 세상을 지키기 위한 카이로의 도전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흑백 일러스트가 상상력을 더욱 자극하는 판타지 소설이다.

<저자 소개>

마시케이트 코놀리(MarcyKate Connolly)는 SHADOW WEAVER, MONSTROUS 등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아동 소설 작가다. 햄프셔 칼리지를 졸업하고 문학 활성화에 매진하는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

댄 해어링(Dan Haring)은 시각 효과와 애니메이션 제작자로 영화 ‘라이언킹 3D’, ‘라푼젤’, ‘인크레더블 헬크’ 등에 참여했다.